

종합 해설

■ 광주 온 민주 대권주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인터뷰

“박근혜 대세론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광주 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 추모 3주기(5월23일)를 앞두고 ‘무등산 노무현 길 전국 산행대회’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문 이사장은 다음달 9일 전당대회 직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뜻을 밝히며 광주·전남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는 바람도 진솔하게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선 출마 선언은 언제쯤 할 것인가.
▲오는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3주년 추모식이 끝나 뒤, 다음달 9일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치러진다. 당에 부담이 되지않는 시기를 선택, 6월 안에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4·11 총선에서 패배했다.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대선은 총선과 달리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미래 비전과 가치를 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세력이 새누리당보다 우세해서 당선된 것은 아니다. 미래 비



후에도 함께가는 공동 연합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권 대통령 운동할 때도 그렇게 주장해왔다. 안 원장과의 공동정부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 인맥만 챙겼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호남당이라는 이유로 부산에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에서 호남 출마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혹은 참여정부 시절 그렇게 비춰졌다면 우리의 잘못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호남을 정말 사랑했다.

-박근혜 대세론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지.
▲박근혜 대세론은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한 때 높았던 것처럼 박 위원장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 박 위원장 측은 과거 세력이 권위주의적 측면이 강하다. 새누리당이 일상불편하게 보이는데, 사실 정당민주주의가 전혀 없는 권위적인 사당이

전대 끝나는 6월 중순께 출마 선언

광주·전남 지역민 지지 받고싶다

전과 가치 면에선 우리가 새누리당보다 좋기 때문에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대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당내의 핵심을 찾아보기 힘들다.
▲핵심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고 단합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통합하자마자 호남 대 비호남, 친노 대 비노 등 분열했다. 이런 식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세력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

-리더형보다는 참모형이며 권력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동안 참모 역할을 해왔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리더 역할을 해왔다. 리더든, 참모든 제 역할을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권력 의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의와 국가공공체를 외면하고 MB 정부처럼 개인적인 권력 의지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신의 정치적 자산과 강점이 있다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이어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동의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과거의 정치 풍토 속에서 정치를 해왔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 또한, 참여정부 5년간 성취도, 실패도 겪었다. 참여정부의 실패와 한계를 뛰어넘는 비전을 갖게 된 점도 강점이야 장점이다.

-올 대선에서 영남의 야당후보 지지율은 어떨 것 같은지.
▲4·11 총선 정당 지지율이 40.2%였다. 18대 총선 정당지지율은 14%로 거의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마한 16대 대선 정당 지지율은 29.9%였다. 4·11 총선 지지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를 유지, 확대시킨다면 연말 대선에서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안철수 원장과의 공동정부 구성 발언의 진의는.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가 단순히 이기는 쪽에서 정권을 독식하는 식은 안 된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단일화를 넘어 대선에서 승리한 이

4·11 총선 지지율 유지팬 승산

안철수원장과 공동정부 만들것

나를 바꿨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이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느냐.
▲제16대 대선 당시 광주 시민들이 지역을 뛰어넘어 경상도 사람인 노무현을 선택했다. 지역을 뛰어넘는 선택이 민주당의 국민 경선을 국민 감동 드라마로 만들었다. 그 힘으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물리치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광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들어 낸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두 번의 민주정부를 만드는데, 광주·전남이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번 대선은 두 번의 민주정부를 잇는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이 중심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대선에서도 광주·전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는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도 광주·전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를 받고 싶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 광주·전남 의원들 ‘교통정리’

6·9전대주자 강기정...국회 상임위장 주승용

시당위원장 장병완·도당위원장 우윤근 추대

민주통합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의 6·9 전당대회 지도부 도전과 광주시당·전남도당 위원장 인선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도부 도전 = 6·9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도전에 나서는 주자는 3선의 강기정 의원(북 갑)으로 정리됐다.

강 의원은 당내에서 일정 정도의 세를 확보하고 있는 정세균 의원 진영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의원이 이번 도전에서 목표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당장 광주·전남지역에서 강 의원에 대한 친소 관계가 엇갈리는데다 당내 486 그룹인 이상호 의원 등이 나서면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초 지도부 경선 참여 의사를 나타냈던 김동철 의원은 “최고위원에 도전할 생각이었으나 강 의원의 출마 의사가 강해 물러났다”며 “앞으로 정지력을 더 키워 경과와 관계없이 지도부에 진출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권교체”라면서 “내가 지도부 경선에 나서기 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도 친분이 두터운 김한길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선데다 광주·전남지역의 표 분산 등을 감안해 최고위원 도전은 접은 상황이다.

◇광주시당·전남도당위원장 = 광주시당 위원장과 전남도당 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추대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갔다. 경선으로 인한 내부 갈등보다는 추대를 통한 지역 정치권의 화합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당 위원장에는 재선의 장병완 의원이 추대될 전망이다. 광주시당 위원장에 뜻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 강기정 의원이 지도부 경선 도전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장 의원이 뚜렷한 계파 색을 보이지 않는데다 원만하고 합리적 성향이어서 별다른 무리

없이 광주시당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남도당 위원장은 경선 입장을 보였던 배기운 의원이 뜻을 접음에 따라 3선의 우윤근 의원이 추대될 전망이다.

우 의원도 계파색이 없는데다 친화력이 강해 전남도당 위원장에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 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진출은 3선의 주승용 의원이 유일할 전망이다. 우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상임위원장을 맡느냐가 중요하다”며 “지역차라리 하반기에 상임위원장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4·11 총선에서 3선 이상의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많이 나온 탓이다. 김동철, 강기정 의원 등도 3선이지만 나이 순에 따라 하반기에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나연, 김성근, 우윤근 의원 등은 이미 상임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다. 3선의 박지원 의원도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상임위원장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1일 새누리당 광주·전남지역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중흥동 새누리당사에서 지역 당직자들과 함께 총선 공약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근혜 “대선출마 시기 안 정했다”

‘민생탐방 전국투어’ 마무리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대선출마 선언 시점과 관련,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추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생탐방차 호남을 찾은 박 위원장은 이날 전북 새만금 임시홍보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국민 여러분께 들은 말씀이런데, 이런 것에 대해 보완하고 평가해서 생각해 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정몽준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의원,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등 비박(비박근혜)계 잠룡들이 잇따라 대선 경선출마를 선언했으나 박

위원장은 아직까지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5·15 전당대회 직후 경선 캠프가 꾸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날 박 위원장의 재추진 발언에 미뤄 6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날 오후 광주 시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 시·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점검했다.

이로써 박 위원장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민생탐방 전국투어’ 및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을 이날 호남 방문을 마지막으로 마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불법선거 신고 5명에

포상금 3천만원 지급

전남도선관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순천시장 보궐선거 등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 내용을 신고한 A씨 등 5명에게 모두 31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나주·화순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배우자를 초청, 식사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250만원의 포상금을, 선거구민 4명에게 4만8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 사실을 신고한 B씨는 포상금 160만원을 받는다.

순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자원봉사 활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을 신고한 C씨에게는 19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여수시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D씨는 120만원을 받고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제보한 E씨에게도 포상금 700만원이 지급된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4·11 총선 등과 관련 선거부정 감시단원에게 8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등 9명에게 모두 5천850만원을 지급했다.

/최원필기자 cki@kwangju.co.kr



무등산 산행 문재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3일 광주 무등산 노무현길 전국산행대회에 참석해 등산객들과 산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도 모바일 경선 부정 논란

오늘 진상조사단 구성...박지원 “있는 그대로 밝힐 것”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후보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부정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14일 이화영 비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모바일 경선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파기 여부를 둘러싸고 실무자와 당 선관위원장의 말이 다르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모바일 경선을 하면

서 보낸 중앙당 공문서에는 개인인상 정보 보호를 위해 즉각 파기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당 실무자들은 즉각 파기했다고 하고 선관위원장은 다르다고 하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그제 어떤 경우에도 자료가 있다고 하면 파기나 그런 일은 하지 말고 명확한 것을 국민에게 알려라고 했다”며 “이런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은폐나 국민을 속이는 일은 있을 수 없

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에서 고홍·보성 경선에 출마했던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진보당 사태는 지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부정의혹에 비취뿔 때 빚산의 일각”이라며 공천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는 “참관인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개표 과정이 참관인 없이 배일에 싸인 주관업체의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 이뤄졌다”며 “특히 주관기관의 관계자가 제3의 장소에서 통

합진보당 온라인 선거처럼 소스코드를 열람해 투표결과를 사전에 모니터링 및 조작했을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관사 3명을 지난 11일 민주당 영등포 당사로 보내 지난 3월 실시된 모바일 경선 투표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선 관련 자료는 당원들만의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인사사항도 포함돼 있어 용도가 다한 즉시 폐기했다”며 “현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경선 관련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자 아니라 당내 경선 여론조사자서 6개월 보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당권주자 본격 경쟁 돌입

조정식·문용식·이상호 ‘출사표’

민주통합당 6·9 전당대회 경선에 조정식 의원, 문용식 인터넷 소통위원장, 이상호 당선자가 13일 출사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정치공학적 방법으로 국민의 지지만을 바라는 민주통합당, 이제 구태의연한 민주통합당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며 “지금은 친노와 비노, 호남과 비호남을 따질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olee@

문용식 인터넷 소통위원장도 전대 출마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 내 계파정치를 종식하고 새로운 인물이 민주당을 쇄신해야만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당선자는 “계파정치, 담합정치로 짜여진 각본대로 당 대표가 선출된다면 전당대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밝혔다.